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흥 송호빈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 강진군, 소규모 전통주 되살리기 착수

강진군은 가정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빚어온 우리 술의 합법화와 기술 보존을 위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취득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세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 초기에 소득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당해 연도에 한해 자가품질검사비와 수질검사비에 대해서도 보조금(60%)을 지원한다.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먼저 세무서에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 전통방식 우리 술의 합법화·기술 보존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취득사업비 1억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오는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보조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진군은 전통주 산업화의 첫 단계를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취득을 통한 기능 보유자를 양성하고 다음 단계로 시설기반과 품질 경쟁력을

이에 발맞춰 강진군에서는 자치대학에 발효과정을 개설하여 가양주, 식혜, 식초 등 발효식품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과거에는 대부분 집에서 전통주를 제조하였는데 점점 그 기술이 사라져가고 있어 아쉽다. 전통주 기술 보존과 함께 지역 경제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김영일 기자



## 담양군, 고품질 수출딸기 생산 위한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

담양군 최근 딸기 제배 및 수출 농업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을 진행해 참여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농산물 수출에 관심 있는 농가를 사전에 조사해 실시하는 맞춤형 현장컨설팅이다. 컨설팅은 딸기제배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선정해 우량묘 생산을 위한 포장과 병·해충 방제, 국산 딸기 수출현황 및 국가별 수입시장 및 수출전략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으며, 수출 시 문제점과 사례를 토대로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지원했다. 이병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담양은 올해 봉산면과 창평면에서 27톤, 2억 8천만 원의 딸기를 홍콩과 대국에 수출하며 국내 딸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며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우리지역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시정에 청년목소리 담는다' 여수시, 청년활동가 위촉

꿈뜨락울 30명 위촉...2년간 청년 정책 발굴·아이디어 제시 등



여수시가 시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청년활동가 30명을 위촉했다. 시는 5월 31일 오후 꿈뜨락울에서 제3기 청년활동가 위촉식과 워크숍을 열고 청년정책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에 위촉된 청년활동가는 학생, 지역업자, 직장인, 취·창업준비생 등 각계각층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2년 동안 소통·교육·복지, 일자리창출, 문화·예술, 관광·축제 4개 분야에서 여수시 청년정책 파트너로 활동하게 된다. 주요 역할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 발굴·논의, 아이디어

제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활동가를 모집했다. 이날 행사에서 권오봉 여수시장은 청년활동가와 '청년이 바라는 청년정책'을 주제로 공감토크의 시간을 가졌다. 포스트 잇을 이용해 자유롭게 질문·답변하는 형식이였다. 이후 청년활동가들은 임원진을 선정하고 앞으로의 운영방안과 일정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청년정책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열고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면서 "많은 청년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시정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화순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첫 시행

14일까지 신청·접수

화순군이 올해 처음으로 행정 보조 등 업무를 담당할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한다. 군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덜면서 공공 행정 분야의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학 동안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추진한다. 군은 3일부터 14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아 대학생 60여 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대학생은 7월 2일부터 8월 12일까지(근무 일수 30일) 군청 실·과·소,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게 된다. 공고일(6월 3일) 현재 부모 모두가 화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대학교 재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학생 본인의 주소는 어디

든 상관없다. 군청 총무과 평생교육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가구별 소득수준 등 기준에 따라 참여 대학생의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www.hwasun.go.kr)의 '공직사항'에서 확인하거나, 화순군청 총무과 평생교육팀(061-379-3353)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경기 불황과 학비 걱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지역 발전 업무 보조를 통한 애환상을 기르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주민 체감도가 높은 교육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 영암군, 금연·구강 홍보캠페인 실시



영암군보건소는 지난달 31일 NH농협은행 영암군지부 앞에서 '담배로부터 우리의 폐를 지켜주세요', '정기적인 구강검진 평생 건강의 첫 걸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주민 청소년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세계 금연의 날(5. 31.)과 구강보건의 날(6. 9.) 행사 홍보활동을 다채롭게 전개하였다. 이날 행사는 영암교육지원청, 세한대학교 금연서포터즈, 금연공감학교 위촉학생, 금연지도원들과 함께 금연상담, 호기일산화탄소 측정 및 담배소매업자들의 청소년에게 담배

안팔기 홍보와 영암지역 의사회, 관내 어린이집 원아생들이 함께 구강검진 및 상담, 불소바니쉬도포 체험, 올바른 잇솔질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오복(五福)의 하나인 치아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고 흡연은 구강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됨을 알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구강관리와 금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 적극 나선다

완도군은 최저 임금 인상과 장기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관내 소상공인은 3,500여개 업체로 전체 사업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쇼핑이 급증하는 등 소비 패턴이 바뀌고, 환발과 혼술을 즐기는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갑을 여는 소비층이 감소하면서 실물 경제가 위축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정부의 카드수수료 제로화와 금융지원 정책 등 소상공인 지원과 연계해 금융지원, 경영혁신, 지역화폐 발행 사업 등에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으로는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901개 업체에 190여 원의 융자 추천으로 소상공인이 보증서를 통해 신용대출을 받았다. 올해 6월부터는 군비 4억 원을 확보하여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신용보증서 발급, 금융권 대출이자 본인 부담

액 3%를 2년 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카드수수료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소상공인 가계 활성화를 주도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완도시립상품권 발행을 준비 중에 있으며, 정부에서 3월부터 도입한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제로페이'는 휴대폰을 통해 가맹점 내 QR코드를 촬영하면 구매비용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왔던 1.2~2%의 카드수수료를 0% 대로 낮추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군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경영 혁신 지원 사업에도 적극 나선다. 경영 애로 해소와 성공적인 마케팅으로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8월부터 경영 컨설팅을 추진한다. 지난해 경영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사업 성과 측정을 거쳐 사업비를 대폭 확대하고, 골목 상권의 실질적인 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 친환경 천연 창성찬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찬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찬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찬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찬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찬디**  
장성찬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찬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찬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찬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찬디의 맛과 향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찬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찬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



전국 찬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찬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찬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찬디의 맛과 향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찬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찬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